

01 교회소식

아름답고 황홀한 천국의 행복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밝고 빛나는 천국, 신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천국을 보여 주는 우리 교회.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 질병, 재앙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03 BOOK

천국과 지옥, 정말 있나요?

천국과 지옥의 실존 여부,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다국어로 발간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천국', '지옥'.

04 간증

“근심 걱정은 주님께 맡기세요”

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고, 사업터에 축복이 넘치는 등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의 간증.

# 만민뉴스

제705호 2015년 9월 2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황홀하고 신나게 펼쳐진 천국, 와 보세요!”

## 창립 축하 공연을 통해 느끼는 천상의 행복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에 여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곳에 이르면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취향에 맞춰 황홀한 천국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로 감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가 되려면 주님을 영접해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더없이 아름답고 평온함이 느껴지는 곳에 가면 사람들은 말한다.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아요.” 혹은 “여기가 천국이에요.”라고.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天國)이라는 단어 그대로 막연히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라일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린이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디에 존재하고, 처소는 어떻게 분류돼 있으며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풀이받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천국’ 설교 시리즈를 듣고, 이를 토대로 발간된 『천국』 책자를 읽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면).

또한 예능위원회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찬양과 무용, 분장과 공연으로 하나

께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 성도가 천국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회 창립 27주년 축하 공연 때부터 주제와 찬양 곡을 주기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2009년에는 ‘천국’, 2010년에는 ‘바다에서의 연회’라는 주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이르러 연회에서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아름다운 선율의 찬양과 연주, 무용으로 표현했다.

특히 2011년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연회를 ‘목자의 성’이라는 공연에 담아냈다. 보석기차를 타고 코끝을 스치는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신나고 재미있게 즐기는 새 예루살렘 ‘놀이동산’ 등 천국의 행복이 눈앞에 펼쳐지는 시간이었다.

이듬해인 2012년 축하 공연의 주제는 ‘하늘과 땅’이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까지 만민 제단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천군 천사와 이 땅에서 경작받은 성도들이 어우러져 영광 돌리는 내용이었다.

2013년에는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2’가 본당 특설무대에서 공연됐다. “아브레시아 마카레토사”(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천국 언어로 찬양 전사장이 올려드리는 감동의 찬양으로 막이 열려 장내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고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했다.

이뿐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계절 동산, 꽃의 동산, 눈의 동산, 놀이동산, 물고기들과도 사랑을 나누는 신비로운 천국의 ‘바닷속’, 경작받던 때를 회상하며 걷는 오솔길 등 천국의 다양

한 곳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을 표현했다.

2014년에는 본당 안에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맑은 호수 연회장으로 특설무대가 꾸며졌다. 제목은 ‘초대장’. 하나님께서 베푸신 새 예루살렘 성 연회에 목자와 성도들을 초청하기 위해 보내신 초대장에는 기쁨 있고 아름다운 천국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전야 행사 때는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3D가 상영돼 천국 소망으로 뜨거워졌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 무수한 영혼에게 전할 사명감으로 충만해졌다.

올해 창립 33주년 축하 공연을 통해 보여 주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예능위원회에서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 전야 행사는 10월 9일 금요일예배 시, 본 행사는 11일 주일 저녁예배 시 볼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31~33)

# 하나님의 마음

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신 대로 병과 약한 것을 구분하고 있지요.

병은 그 자체로 고통스럽지만 가족까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병을 치료하면 다행이지만 불치, 난치병이나 신종 질병에 걸리면 치료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환자로 살거나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재앙 또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 지진, 해일 같은 천재지변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 같은 재앙 또한 피하기 어렵지요. 비행기나 배, 또는 버스나 지하철 사고로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처럼 가난, 질병, 재앙으로 인한 염려, 근심, 걱정은 사람들의 얼굴을 주름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를 믿는 분들은 얼마든지 평안히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대로 행했습니다. 부채가 많고 이자를 갚기에 급급할 때도 항상 십일조를 넉넉하게 드렸지요. 그 결과, 십일조를 가장 많이 드리고 구제를 가장 많이 한다고 자신할 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말 3:10).

또 주님을 만나 말씀대로 산 이후로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본 적도 없고 어떤 재앙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온전히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물리쳐 주시고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두 계명을 지키는데도 몸이 아프거나 재앙을 만나며 어렵게 사는 분을 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축복을 안 주시거나 지켜주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예컨대, 암 같은 큰 병에 걸린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특별한 공의 가운데 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치료하는 여호와’ 설교나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부도나거나 부당하게 실적을 당하는 등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현저한 육체의 일을 범한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지요(갈 5:19-21). 이런 경우 아무리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해도 축복을 주시거나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통회자복하고 온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불순종하거나 죄 가운데 거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을 자초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2)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주일성수도 잘하고 십일조도 드리며 어떤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이 돼도 부모님께 은혜 값을 줄도 모르고 달라고만 한다면 이는 몸집만 큰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연륜이나 직분이 작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육의 삶에 대한 염려에 매여 육의 것만 구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믿음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리하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6:31-33).

저 또한 이 말씀을 믿었기에 초신자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심고 성도들을 구제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이에 각종 헌금을 1등으로 드릴 수 있었지요. 소득이 많아서 이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넘치게 드린 결과입니다. 열심히 심고 거두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를 앞서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나 육적인 문제로 염려하거나 기도하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 먼저 드렸을 때 저나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축복은 물론 질병이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지요.

이처럼 영적인 믿음을 갖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난, 질병, 재앙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출 15:26).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며 최고의 평안과 행복이 있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구나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지요. 이러한 마음을 알아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주 안에서 가난, 질병, 재앙을 만나지 않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이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기로 쉽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창 3:17-18).

그뿐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후로 각종 해로운 독과 질병균, 바이러스 등이 생기면서 사람은 질병의 공포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인재 등 각종 재해와 사고 즉 어떤 재앙이 닥치는 않을까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게 됐지요.

이러한 가난과 질병, 재앙은 사람들에게 일생동안 따라다니는 대표적인 염려,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질병은 원치 않아도 오고, 아무리 조심해도 틈듭니다. 또한 균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생기는 질병뿐 아니라 ‘악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한 것’이란 신체의 어떤 기관이 잘못돼 그 기능이 마비되거나 퇴화돼 정상적 활동

## 2.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비결

### 1)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

신앙인의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계명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과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리라” 하신 말씀만 순종해도 가난, 질병, 재앙이 대부분 물러갑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믿음만 내보여도 가난, 질병, 재앙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분들은 점점 가난이 물러갑니다. 안 되던 일들이 잘되고, 없던 일감들이 들어오지요. 또 도둑을 맞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고 질병이 틈타지 않으며 재앙을 만나는 일이 없으니 돈이 새나갈 일도 없습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횡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4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253-985877 (예금주 이경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http://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천국과 지옥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누구나 한번쯤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 여부에 의문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이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이 있다.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가 무수한 금식과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설교한 내용을 담은 『천국』과 『지옥』 책은 다국어로 발간돼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므로 수정과 같이 맑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황홀한 곳이다. 이 땅에서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해도 천국의 찬란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준비된 천국은 여러 처소로 나뉘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겨우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낙원, 성령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1천층,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들어가는 2천층, 마음의 성결을 이룬 사람들이 들어가는 3천층,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백보좌 심판 이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처소가 결정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국 처소 중 가장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기를 고대하신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며 영원히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만 있는 참담한 곳이다(막 9:48).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옥의 참상을 아시면서도 왜 지옥이라는 곳을 두실 수밖에 없으셨을까?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흥도 없으신 거룩한 분이기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마 7:21).

만일 선과 사랑만 넘치는 천국에서 온갖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산다면 아름다운 천국은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혼들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알곡을 모아 들이는 천국과 구별해 지옥을 따로 두실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가 지옥을 믿지 않다가 결국 타오르는 불꽃 속에 떨어져 후회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결단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9.27~10.03

**행복한 한가위**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선 ■ 천국 19-21
- 1차 영혼육 7-8
- 2차 영혼육 1-3
- 창세기 강해 16-20
- 요한계시록 강해 52-57
- 믿음을 척량하시니 9-13
-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7

**GCN TV설교**

- 팔복 3 (이수진 목사)
- 교만 2 (이미영 목사)
- 생명과 평안 2 (이미경 목사)
- 근본 마음 (이희선 목사)
- 생명수 19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9 (정구영 목사)
- 연단은 내 탓이다 (조수열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4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7
- 창조와 과학 15 ■ 내 마음의 찬양 17
- 옛날 옛적에 12 ■ English 8
- 즐거운 요리 4 ■ 모두 드려요 34

**추석 특집 프로그램**

- GCN특선영화 [말아톤]
- 2015 만민 하계수련회 캠프파이어
- 2015 만민 학생찬양제
- 2015 여름성경학교 파워 지저스
- 2015 기관장 교육

GCN HD 채널  
kt olleh tv 882번





# “이제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요”

인생을 살다보면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주 안에서 응답과 축복을 받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만민의 성도들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 “안 들리던 귀가 들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마폰 깨우워몬 성도 (46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저는 선천적 농아로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정상인들과의 소통이 수월하지 않아 제 마음은 늘 답답했지요. 저는 ‘나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5월, 한국 만민중앙교회의 이희선 목사님(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이 저희 치앙라이만민교회에서 손수건 집회(행 19:11~12)를 인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모함으로 기다렸지요. 소리를 듣고 싶은 소망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일이 끝나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손수건 집회가 열렸고, 감사 이희선 목사님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으로 환자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뒤 제 오른쪽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왼쪽 귀에도 희미하게나마 무언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정상인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 생애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간단한 말은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을 뿐 아니라 10년 동안 고통받던 허리 통증과 위장병까지 깨끗이 치료받았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사업터가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집사 (38세, 대구만민교회)**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저희 부부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울이와 하랑이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터에도 넘치는 축복을 주고 계시지요.



2011년 5월, 저는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에 고기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20~30만 원 드린대 수입조가 2013년 5월경 축복 기도를 받은 후부터는 매월 증가해 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너무 감사해 영혼 구원을 위한 구제와 GCN 방송 선교 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예물을 즐겨 심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지요. 또한 식당 운영에 있어서도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니 하나님께서 사업이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2014년 2월엔 구미시 인동에 숙성육전문 브랜드 ‘육풍’으로 본점을 개업했고, 마침내 국내 최초의 돼지고지 드라이에이징(무침가물 전통 건조숙성법) 프랜차이즈를 창업했지요. 미식가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연예인들도 다녀가는 등 소문은 소문을 더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가맹점을 개설하기 시작해 유망 창업 브랜드로 인기를 끌면서 현재 32호점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아내는 구역장과 학생주일학교 부장으로, 저는 남선교회 회장과 학생주일학교 지도교사로 주의 나라를 섬기며 전국 소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 삶에 영육 간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파라이 박사 (56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저는 1년 6개월 동안 당뇨, 고혈압, 결핵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심한 기침을 달고 살았으며 식사도 거의 할 수 없었고 몸이 수시로 떨려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부축을 받아 겨우 걸었지만 여러 번 쓰러져 병원에 자주 입원하곤 했습니다. 제가 의사이면서도 의학으로는 제 병을 온전히 고치지 못했지요.

이처럼 질병으로 고통받는 저를 안타까워하던 조카 미레이는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등을 전하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은혜받아 2014년 9월, 킨샤사만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일예배는 물론 금요철야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치료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요.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을 의지하며 십일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본교회에서 개최하는 ‘2015 만민 하계수련회’ 기간에 치료받기 위해 금식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했습니다.

8월 초, 저는 하계수련회 GCN 녹화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받은 후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잘 걷고 식사도 잘 하며, 기침도 없어져 컨디션이 매우 좋아졌지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응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처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천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9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334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40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53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곡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